

“농촌유학 호응 높은데 서울시의회가 예산 삭감”

민주 유기홍 의원, 전북교육청 등 국감서
“서울 학부모 만족도 조사서 80%이상이 호응
전북지역 농촌 학교가 살아나는 계기 돼
서울시의회가 예산 지원 근거 마련토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17일 “전남과 전북교육청의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서울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는데 서울시의회가 지원예산을 삭감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은 “농촌유학프로그램은 전남의 경우 수년만에 82명에서 279명으로 늘었고 전북은 27명에서 84명으로 증가했다”며 “농촌지역 유학을 선택한

서울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80% 이상이 만족감을 나타낸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농촌 유학을 선택한 학부모에게 정착금 50만원 생활자금 30만원 등을 지원했다”며 “하지만 지난 9월 국민의힘 중심의 서울시의회가 농촌유학프로그램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켜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예산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이율러 “농촌유학프로그램은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과 전북지역 농촌 학교가 살아나는 계기가 됐고 학생들도 생태환경을 체험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며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가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서거석 전남·북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수립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사업이 타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뉴시스

LDC 관련 기술개발 새만금 전기차 제조산업 활성화 도모

국립군산대, 전기차 부품 전문기술업체 코스텍과 기술개발 연구 프로젝트 공동 추진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는 17일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국내의 대표적인 전기차 부품 전문기술업체인 (주)코스텍과 기술개발 연구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과 관련한 상호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장호 총장을 비롯하여 (주)코스텍 이성기 대표이사, 군산형일자리 건설팀사업단장 김현철 교수,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 및 RIS에너지사업단장 장민석 교수, 지역맞춤형 전기차 클러스터 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 이경구 교수, 전기공학과 학과장 이정호 교수 등 국립군산대와 (주)코스텍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전기자동차용 전장부품과 관련한 기술개발 연구 프로젝트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군산대는 최근 이차전지 및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제조업 특화 단지가 조성된 군산 새만금 지역의 관련 기업과 함께 군산시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사업/RIS 에너지산업 사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학 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이날 체결한 협약은 전기자동차용 전장부품과 관련한



국립군산대학교는 17일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국내의 대표적인 전기차 부품 전문기술업체인 (주)코스텍과 기술개발 연구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과 관련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 새만금 지역 입주기업의 기술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주)코스텍과의 협약을 기점으로 국립군산대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전기차 부품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특히 LDC(Low Voltage DC/DC Converter), OBC(On-Board

Charger)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통한 군산 새만금 전기차 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전기차 시축성형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주)코스텍도 국립군산대와의 협약을 계기로 전기자동차 전기부품산업과 관련한 신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관곤 기자

꿈꾸는 청소년 위한 동아리실 무료 대여

전주교육문화회관, 소통공간 '꿈당' 운영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청소년 또래모임 및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무료로 공간을 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본관동 4층에 마련된 청소년 소통공간인 '꿈당'은 청소년들의 문화 힐링 장소이자, 토론·학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다. '꿈당'은 소모임실, 그룹토의실, 휴게실, 힐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철관, 스마트TV, 프로젝터, PC(2대), 복합기가 구비되어 있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소모임실은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각종 토론·연구·동아리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평일과 주말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힐링 공간은 보드게임, 인기 웹툰 시커태이블을 구비해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또한 그룹토의실은

최대 24명까지 수용가능해 도서관 현장체험 및 교실밖 수업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아리실은 청소년 배정을 우선하고, 방과 후에는 청소년 전용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담없이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도록 했다. 이현규 관장은 “청소년 소통공간 '꿈당'이 학생과 지역 주민의 교육적 공유 공간으로 기능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와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주교육문화회관 누리집(<https://lib.jtc.go.kr/jc>)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슬기로운 가족과학캠프 운영

도교육청, 내달 11~12일 전주한옥마을 일대서
도내 초·중·고교 사회적배려대상 가족 대상

전주비전대-전기공사협
산학협력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우병훈은 지난 13일 AI뉴테크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연구개발 공동수행, 산학 전문교과 및 교육과정 공동개발 △에비 전기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 정학후원 △산업체 위탁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운영 △실습실습 교육용 기자재 활용협조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이재수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학생들이 협회의 기업체에 채용돼 전북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멘토 역할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병훈 총장은 “전주비전대학교는 빠르게 움직이는 세계적 시류에 발맞춰 모든 교육과정에 AI, ICT, Robot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두 기관이 상생할 방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슬기로운 가족과학캠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초·중·고교 사회적배려대상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11월 11~12일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가족 미션(전주 향교에서 사라진 위패를 찾아라!), 가족 과학 인형극 만들기, 전주천 생태탐사 등을 통해 가족 간 정을 쌓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 설문(<https://naver.me/FQR9nd>)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참가 신청 사안을 심사 거쳐 사회적배려대상 2가족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강 참의인재교육과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어려운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과학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나아가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게임콘텐츠학과 재학생 작품, STEAM 영문판 버전 출시

전주대학교 리빙랩 기반 한문화콘텐츠 커플링사업단(단장 고기환)은 현재 사업 참여 학생의 작품이 전 세계 게임사이트인 STEAM에 영문판 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게임콘텐츠학과 도원결의 3인방팀이 만든 PC게임 '블록과 미연시와 고대 그리스'는 마우스 드래그로 블록을 합치는 2D 퍼즐 게임으로, 2023년 9월 4일 아시아 게임사이트인 STEAM에, 그리고 10월 12일 영어판 게임 파일을 미국 STEAM에 추가로 출시했다. 이번 작품의 팀장인 최지수 학생은 기획, 그래픽, OA 등 다양한 분야에 실력을 갖춘 학생으로 이 게임의 완성도를 높였고, 추가로 영어 번역을 통



해 전 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